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이 훈 진 원 호 택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편집성향과 피해망상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 및 방어적 귀인양식과 관련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우울증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은 우울증과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이라는 공통요인을 가지지만, 타인개념과 귀인양식에서 편집증 집단이 더 부정적이고 더 방어적이라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175명에게 자기개념 질문지, 타인개념 질문지, 편집척도, Beck 우울척도, 적대감 척도, 자기개념 괴리 질문지, 귀인양식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이 편집성향과 관련된 핵심 변인이었고, 귀인양식에서는 방어적 경향을 보였다. 우울의 경우는 부정적 자기개념만이 관련이 높았고, 귀인양식에서는 자책적 경향을 보였다. 연구 2에서는 피해망상 환자집단, 우울증 환자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피해망상 집단의 자기개념은 통제집단보다는 낮고 우울집단보다는 높았고, 타인개념은 다른 두 집단보다 부정적이었으며, 귀인양식에서는 극단적인 자기봉사적 편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편집증적 경향과 피해망상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 방어적이고 자기봉사적인 귀인양식과 관련되며, 우울증의 경우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비하적인 귀인,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타인개념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Colby, Fugate, & Parkinson, 1979; Freud, 1915/1957; Havener & Izard, 1962; Hingley, 1992;

Lyon, Kaney, & Bentall, 1994; Rogers, 1958; Silverstone, 1991)이 편집증의 기저에 부정적 자기개념이나 자존감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했지만 피해망상 환자 집단의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렇지만 Kinderman(1994)의 연구에서는 Stroop 과제에서 피해망상 집단이 부정적 성격특성 단어에 민

감함이 밝혀졌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b), 원호택과 이훈진(1997)은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이 통제 집단보다 부정적임을 입증했다. 따라서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집단이 자기개념과 자존감 손상에 민감하고, 피해망상 집단의 보고된 자기개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방어적 편향과 의도적 증진 등 자기불사적 편향의 결과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환자 집단의 방어적 귀인편향은 이미 원호택과 이훈진(1997), Candido와 Romney(1990), Fear, Sharp 및 Healy(1996), Kaney와 Bentall(1989, 1992), Kinderman과 Bentall(1997)에 의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원호택과 이훈진(1997)의 연구는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연구들은 귀인양식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편집증의 핵심 특성과 우울증 등 다른 증상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자기개념과 방어적 편향 만으로는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부정적 타인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Cameron(1963)에 따르면, 편집성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한다는 만성화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격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부정적 자기개념, 방어적 귀인양식과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부정적 타인개념, 높은 적대감 수준이 편집성향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

자기개념을 편집증의 핵심 변인으로 연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변인 중 하나는 자기개념 괴리이다. 자기개념간 괴리는 Higgins(Higgins, Klein, & Strauman, 1985; Higgins, 1987)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는데, 그는 자기자신에 대한 여러 관점(자기자신의 관점, 타인의 관점)과 측면(실제, 이상, 당위적 측면의 자기)에 따른 자기개념들 간의 괴리가 특정 정서 장애와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Bentall, Kinderman 및 Kaney(1994)는 피해관념에 관여하는 인지적 편향이 자기개념 괴리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울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큰 괴리에 머무는 것이 특징인 반면, 피해관념은 이 괴리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자극에 의해 자기-이상 괴리가 활성화되면 망상 환자들은 극단적인 외부 귀인을 통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지각된 괴리를 적극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가정했다.

Kinderman과 Bentall(1996)은 Higgins의 자기질문지 수정판(타인 관점을 부모의 관점에 국한시키고, 자기기술도 평정을 생략한)을 사용해 피해망상 집단, 우울 집단, 통제 집단을 비교했는데, 피해망상 집단은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실제 자기와 당위적 자기간의 괴리는 통제 집단처럼 작았지만, 부모 관점에서 추론된 자기개념과의 괴리는 우울 집단처럼 컸다. 이는 Bentall 등(1994)의 모형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므로, 특별한 귀인과 정 없이도 남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Cameron, 1963), 자기-타인개념 괴리도 망상 형성 이전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 측면에서 우울집단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이상간 괴리와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해 편집성향 및 피해망상,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개념 괴리 측정상의 문제로서, Higgins 등(1985)의 경우처럼 피험자가 6가지 관점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10개씩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응답 자체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할뿐 아니라 응답자가 6가지 관점과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응답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Higgins이론을 국내에 적용한 연구(서수균, 1996)와 본 연구자의 예비 조사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두 측정치간에 .87의 상관이 있었다. 이는 실제, 이상, 당위라는 세 측면의 자기개념이 우리 나라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차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실제/이

상적 자기간의 괴리와 실제/당위적 자기간의 괴리는 실제 자기개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변인들은 일차적인 설명변인으로서 보다는 실제 자기개념 수준에 더해 부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자기개념 상의 괴리 자체보다는 그러한 괴리를 줄이려는 욕구가 있는 지, 또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이다. 이는 Markus와 Nurius(1986)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중요하듯이, 자기개념에 있어서도 괴리 자체보다는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지, 줄이려는 욕구가 있는 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iggins 등(1985)이나 서수균(1996)의 경우처럼 자기의 6가지 측면을 각각 측정해서 동의어, 반의어 수나 점수들간의 차이를 괴리 점수로 하기보다는 지각된 괴리와 그 감소가능성을 직접 평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증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임상 증상은 우울이다. MacKinnon과 Michels(1971)는 편집증의 기저에 우울이 있다고 했으며,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우울의 위장된 형태로 보았다. Candido와 Romney(1990), Bentall 등(1994)은 편집장애와 우울증이 같은 원인, 즉 불쾌하고 침체된 기분(dysphoric mood)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편집증과 우울의 핵심 차이는 귀인양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 입장은 선행 연구들에서 잠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한 귀인양식에서의 차이 이외에 자기개념이나 그 괴리, 타인개념이 우울증과 피해망상을 구분짓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편집증상이 동반된 경우와 두 증상 중 하나만 두드러진 집단을 구분해서 비교하거나 우울 수준을 통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이 피해의식의 원인적 요인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망상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자기봉사적 귀인편향과 부정적 타인개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자

기개념을 나타낸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의식이 망상 수준에 이르지 않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피해망상 집단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결과의 명확성을 위해 전통적으로 편집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울 수준을 통제하거나 우울 집단과 비교하였다.

연구 1.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 연구

대학생 집단의 자기개념, 타인개념, 실제자기-이상적 자기간의 지각된 괴리, 실제자기-타인의 기대간의 지각된 괴리 및 그 감소가능성 지각, 감소동기를 측정해 편집 점수 및 우울 점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자기개념과 피해의식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타인개념과 적대감, 귀인양식을 포함해 연구하였다. 집단 비교 시에는 비우울-편집집단(이하 편집 집단으로 칭함), 편집-우울 집단, 우울-비편집 집단(이하 우울 집단으로 칭함), 비우울-비편집 집단(이하 통제 집단으로 칭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기본 가설은,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 및 부정적 타인개념(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되며, 이 관련성은 우울 수준과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인양식의 경우 편집성향 수준에서는 방어적, 자기봉사적 편향을 보이지만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피험자: 대학생 175명(남 130, 여 45)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도 구

1) 편집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제작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편집성향이 높은 것이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a)에 따르면,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2) 한국판 Beck 우울척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울척도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기개념 질문지: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이 사용한 20문항의 질문지에 가정, 능력 측면을 추가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내적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은 .80이었고, 의미미분법을 사용한 서수균(1996)의 실제 자기개념 점수와는 .74의 상관이 있었다.

4) 타인개념 질문지: 자기개념 질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평정 대상이 자기자신에서 타인으로 바뀌었을 뿐 문항 내용은 자기개념 질문지와 동일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개념이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적 합치도(α)는 .89,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다.

5) 자기개념 괴리 및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지(실제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 및 타인의 이상적 기간간의 괴리): 자신의 이상적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 정직함)를 7개 적도록 한 후, 각 단어가 현재 자신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실제/이상간 일치도) 평정하고, 앞으로 그 괴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평정하도록 한다. 각 단어별로 일치도와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괴리감소 동기)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관점을 바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고 기대한다고 생

각하는 이상적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를 7개 적도록 한 후, 실제 자기와의 일치도, 괴리 감소 가능성, 감소 동기를 평정하도록 한다. 각 평정 문항은 1에서 7까지의 7점척도로 구성하였다. 단어 수를 7개로 정한 이유는 예비조사 결과 대학생의 경우도 단어를 7개 이상 적지 못한 경우가 10% 정도 되고 7개 이상인 경우 앞에서 썼던 형용사의 동의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6) 적대감 척도: SCL-90-R(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적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이고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7) 귀인양식 질문지: Peterson 등(1982)이 제작한 것을 이영호(1993)가 번안하고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12개의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쓰고 내부, 안정성, 총체성 차원에서 귀인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12상황 중 6가지는 긍정적인 사건, 6가지는 부정적 사건이며, 긍정, 부정 각각에서 대인관계 사건과 성취관련 사건을 반반씩 구성하였다.

절 차

한국판 BDI, 편집 척도, 적대감 척도, 자기개념 괴리 및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지, 귀인양식 질문지 순으로 소책자를 만들었으며, 자기개념 질문지, 타인개념 질문지는 적대감 척도와 자기개념 괴리 및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지 사이에 순서를 순환시켜서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강의시간을 이용해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분 석

175명 전체자료를 대상으로 상관 및 회귀분석을 했는데, 상관분석에서는 단순상관과 우울 및 편집증 수준의 영향을 상호 통제한 부분상관을 구했다. 회귀분석은 단계별 변인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런 다음 우울 및 편집증 점수에 의해 선별된 네

집단을 대상으로 변량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집단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은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Scheffé 검증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편집 및 우울성향과 자기 및 타인개념, 귀인양식의 관계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 타인개념이 피해의식과 관련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개념 점수, 타인개념 점수,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 및 실제 자기-타인의 기대간의 지각된 일치도, 괴리감소 가능성 평정치, 적대감 점수, 편집 척도 총점, 우울 점수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편집 점수와 우울 점수간에 .47의 유의미한 상관($p < .001$)이 있었으므로 두 점수와 다른 변인간의 상관을 구할 때 단순상관과 부분상관을 함께 구하였다. 편집 점수 및 우울 점수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그리고 편집 점수와 우울 점수간의 상관을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서는 상관행렬보다는 편집 및 우울 점수와의 상관 및 부분상관계수만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 타인개념과 관련되고, 실제자기-타인이 기대하는 자기간의 낮은 일치도, 그 괴리 감소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괴리감소 동기가 낮은 경향과 관련되었다. 이 측정치들은 우울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편집성향과 높은 역상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정적 자기개념은 편집성향 및 우울과 모두 관련이 있어 두 증상의 공통 요인임이 시사되었다.

우울의 경우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실제자기-이상적 자기간 괴리가 큰 것과 관련 있었으나, 괴리감소 동기가 괴리감소 가능성에 대한 지각, 타인개념 등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편집증 수준을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편집성향과 우울은 부정적 자기개념이라는 공통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타인개념, 자기-이상간 괴리 및 그 감소

가능성 지각, 자기-타인의 기대간 괴리 및 그 감소 가능성 지각과 감소 동기 등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적대감 수준은 편집성향 및 우울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편집증 수준을 통제하고 나면 우울과의 관련성은 많이 줄었다($r = .42$ 에서 $.20$ 으로 감소). 귀인양식의 경우 안정성 차원에서 편집증 및 우울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는데, 두 증상 모두 긍정적 사건을 안정적인 요인에 귀인하지 않는 경향과 관련되었고, 부정적 사건을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하는 경향은 편집성향과 독특한 상관을 보였다(부분상관 $.22$). 내외귀인 차원에서는 긍정사건에 대해 외부귀인하는 경향은 우울과(부분상관 $-.22$), 부정사건을 외부귀인하는 경향은 편집성향과 상관이 있어서(부분상관 $-.17$), 편집성향이 우울과 반대로 방어적 경향과 관련됨이 시사되었다. 총체성 귀인의 경우 편집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사건을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r = -.24$).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의 귀인양식은 안정성과 총체성 차원에서는 우울 집단과 유사하지만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에서는 서로 반대방향의 귀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화된 않지만 편집성향 집단의 방어적 귀인 경향이 드러난 것이며, 원호택과 이훈진(1997)의 결과가 재검증된 것이다.

2) 편집성향에 대한 자기 및 타인개념, 적대감 수준, 귀인양식의 예언력

자기개념, 타인개념, 적대감, 귀인양식이 편집성향을 예언해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변인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적대감 수준이 편집 척도 총점 변량의 32.92%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자기개념 총점이 8.33%, 타인개념 총점이 3.99%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귀인양식 점수의 경우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점수가 유의미한 설명변량 증가를 나타냈으나 투입변인의 수나 종류에 따라 그 순서나 설명력이 달라져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적대감, 자기개념, 타인개념 점수는 투

표 1. 편집 및 우울 점수와 자기 및 타인개념, 귀인양식 질문지 점수간의 상관 및 부분상관(부분상관은 편집 점수와 우울 점수를 상호 통제한 후의 상관임. N=164~175)

측정치	편집점수와 단순상관	편집점수와 부분상관	우울점수와 단순상관	우울점수와 부분상관
자기개념 총점	-.52***	-.36***	-.56***	-.41***
타인개념 총점	-.42***	-.39***	-.14	.11
자기-이상 일치도	-.30***	-.09	-.37***	-.24**
괴리감소 가능성	-.33***	-.21*	-.27**	-.12
괴리감소 동기	-.22**	-.11	-.23**	-.13
자기-타인기대 일치도	-.25***	-.17*	-.22**	-.11
괴리감소 가능성	-.30***	-.26**	-.13	.01
괴리감소 동기	-.28***	-.31***	-.09	.10
적대감 척도 총점	.55***	.45***	.42***	.20*
긍정사건 내부귀인	-.19*	-.07	-.29***	-.22**
안정성귀인	-.32***	-.19*	-.35***	-.22*
총체성귀인	-.28***	-.24**	-.19*	-.04
부정사건 내부귀인	-.08	-.17*	.09	.12
안정성귀인	.27***	.22***	.22**	.14
총체성귀인	.18*	.11	.18*	.14

* $p < .05$ ** $p < .01$ *** $p < .001$

입 변인의 수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순서도 일정해서 편집성향의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들임이 밝혀졌다. 적대감 척도를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자기개념 총점이 28.53%를 설명했고, 타인개념이 6.87%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자기개념 점수와 타인개념 점수, 적대감 점수 및 이 점수들간의 상호작용 점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 했는데, 그 결과 자기개념 총점과 타인개념 총점간의 상호작용이 편집 척도 점수 변량의 33.97%를 설명했고, 적대감 점수가 9.78%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편집성향은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이 모두 부정적인 경우에 나타나며, 적대감을 가지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자기개념 괴리 및 괴리감소 가능성, 괴리감소 동기 등이 실제 자기개념 수준의 설명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편집성향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

아보고, Bentall 등(1994)이 가정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개념 점수와 함께 투입해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실제 자기개념 수준이 28.38%를 설명한 것에 부가적으로, 자기-타인의 기대 간 괴리를 줄이려는 동기수준이 2.76%의 유의미한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실제 자기개념 수준 이외의 자기개념간 괴리 자체는 편집증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했으며, 자기-이상간 괴리를 편집증의 원인으로 가정한 Bentall 등(1994)의 모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회귀분석 결과 적대감이 편집성향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대감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편집 척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념 총점이 적대감 점수 변량의 28.12%를 설명했고, 타인개념 총점이 1.92%의 설명 변량 증가를 가져왔다. 이 결과는 상호작용

표 2. 편집성향에 대한 자기개념 관련 변인들과 적대감, 귀인양식 점수의 예언력

독립변인	R	R ²	R ² 증가량	F	B	SE B	Beta	T
적대감 점수	.5738	.3292		76.56***	.93	.17	.36	5.35***
자기개념 총점	.6423	.4125	.0833	54.41***	-.14	.05	-.21	-2.85**
타인개념 총점	.6726	.4524	.0399	42.41***	-.18	.06	-.18	-2.87**
상호작용 점수를 포함해 분석한 경우								
자기개념 x 타인개념	.5828	.3397		87.45***	-.002	-.0003	-.41	-6.27***
적대감 점수	.6614	.4375	.0978	65.71***	.96	.18	.36	5.42***

* p < .05 ** p < .01 *** p < .001

점수들을 함께 투입해도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적대감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거나 타인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적대감이 편집증의 핵심증상이라는 점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반면 앞서 살펴본 대로 편집성향은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많고 개별적인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우울증의 경우 자기개념, 타인개념, 귀인양식 점수들 중 자기개념 총점이 31.6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변인들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자기개념 관련 변인들만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경우에는, 자기개념 총점이 31.61%를 설명했고, 자기-타인기간 괴리 감소 가능성 지각이 2.08%를 추가했으며, 자기-이상간 괴리 감소 동기가 1.96%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 적대감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우울은 부정적 자기개념만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자기개념 괴리의 경우 두 증상 모두에서 괴리 자체는 자기개념 수준에 부가적인 추가 설명력이 없었으며,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럴 동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Bentall 등(1994)의 주장에 대해 제기했던 비판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이상간 불일치가 우울과 특수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한 Higgins(Higgins 등, 1985; Higgins, 1987)의 이론은 상관분석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귀인양식 점수들의 집단간 차이

상관 및 회귀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고 환자집단 연구와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울 및 편집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의 편집 척도 평균은 25.92, 표준편차는 9.94였으며, Beck 우울 척도는 평균 9.47, 표준편차 6.21이었다. 집단선별 기준은 비우울-편집 집단(편집 집단)은 우울 척도(BDI)에서 하위 30% 이하(6점 이하)이면서 편집 척도에서는 상위 20% 이상(34점 이상)인 경우, 우울-편집 집단은 두 점수 모두 상위 20% 이상(우울 14점, 편집 34점 이상)인 경우, 우울-비편집 집단(우울 집단)은 우울 점수가 상위 20% 이상(14점 이상)이고 편집 점수가 하위 30% 이하(20점 이하)인 경우, 비우울-비편집 집단(통제 집단)은 두 점수 모두 하위 30% 이하(우울 6, 편집 20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집단의 동질성을 높이고, 환자 집단에 가까운 사례를 배제하기 위해 두 점수 중 하나라도 상하위 2표준편차 이상인 극단적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집단별 인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초과되는 인원은 무작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집단별로 14명씩을 선발했는데, 편집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은 남녀 비율이 9:5,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은 10:4였다.

집단별로 측정치 점수를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표 3을 보면, 우선 우울 점수와 편집 점수가 잘 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울 점수는 우울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간에 차이가 없고 편집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편집 점수는 편집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간에 차이가 없고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적대감 수준에서는 편집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높고, 우울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과 차이가 없어 상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집성향과 주로 관련되었다.

자기개념, 타인개념 및 자기개념 괴리: 집단별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점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1이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자기개념의 경우 편집 집단, 편집-우울 집단, 우울 집단 모두 통제 집단보다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보고했으나, 편집 집단

이 편집-우울 집단보다는 자기개념이 긍정적이었다. 우울 집단은 이 두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표 3 참조).

이 결과는 부정적 자기개념이 편집, 우울 두 증상과 관련되며, 우울과 편집이 동반된 집단에서 가장 낮음을 시사한다. 타인개념의 경우 편집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이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부정적이어서, 편집증상을 보이는 집단은 우울증상만 있는 집단이나 통제 집단보다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되게, 부정적 자기개념은 편집, 우울 모두와 관련되고, 부정적 타인개념은 편집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두 점수간 차이를 보면, 편집 집단은 자기개념이 타인개념 보다 긍정적이었다($t(13) = 3.59, p < .01$). 우울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은 자기개념과 타인개념간에 차이가 없었다. 통제 집단의 경우 편집

표 3. 대학생 집단의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관련 주요 측정치들의 평균

측정치	편집 (N=14)	우울 (N=14)	편집-우울 (N=14)	통제 (N=14)	F
BDI	5.85(1.68) ^a	15.15(2.91) ^b	19.00(6.06) ^b	3.14(1.79) ^a	59.22***
편집척도 총점	37.00(4.76) ^a	18.31(5.28) ^b	38.71(4.53) ^a	13.50(2.79) ^b	115.43***
적대감 척도	9.38(3.97) ^a	6.92(3.45) ^{ab}	8.64(4.11) ^a	3.36(2.30) ^b	7.99***
자기개념 총점	106.23(11.40) ^a	101.38(10.63) ^{ab}	90.25(12.12) ^b	122.63(8.41) ^c	25.16***
타인개념 총점	93.85(9.92) ^a	101.00(8.91) ^b	91.25(6.90) ^a	101.63(8.80) ^b	5.42**
자기-이상 일치도	3.70(.75) ^{ab}	3.66(.72) ^{ab}	3.23(.87) ^a	4.31(.70) ^b	5.34**
자기-타인기대 일치도	3.34(.47) ^a	3.46(.82) ^a	3.17(.77) ^a	4.38(.69) ^b	8.86***
긍정사건 내부	4.95(.60)	4.97(.64)	4.46(.51)	4.97(.57)	2.86*
안정성 귀인	5.29(.59) ^{ab}	5.40(.62) ^a	4.69(.62) ^b	5.68(.60) ^a	7.11***
총체성 귀인	5.31(.76)	5.10(.74)	4.93(.80)	5.63(.51)	2.73
부정사건 내부	4.47(.68)	4.87(.67)	4.72(.57)	4.41(.73)	1.51
안정성 귀인	4.14(.66) ^{ab}	4.13(.67) ^{ab}	4.52(.84) ^a	3.59(.79) ^b	4.01*
총체성 귀인	4.77(.94)	4.64(.78)	4.69(.98)	4.28(.92)	.85

영문 위첨자는 Scheffé 검중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간 차이 여부를 나타냄. 영문 위첨자 중 하나라도 공유하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며, 공유하는 글자가 없는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임($p < .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집단과 같이 자기개념이 타인개념보다 긍정적이었다 ($t(13) = 7.84, p < .001$). 즉 편집 집단과 통제 집단은 타인개념이 자기개념 보다 부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자체가 편집 집단에서 더 부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편집성향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자기-이상적 자기, 실제자기-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간의 지각된 일치도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이상 일치도에서는 통제 집단이 편집-우울 집단보다 높았고,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은 서로 그리고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즉 자기-이상간 괴리를 편집, 우울 경향 모두 가진 집단만 통제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타인기대간 괴리의 경우 통제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작았다. 집단별 분석 결과, 두 괴리유형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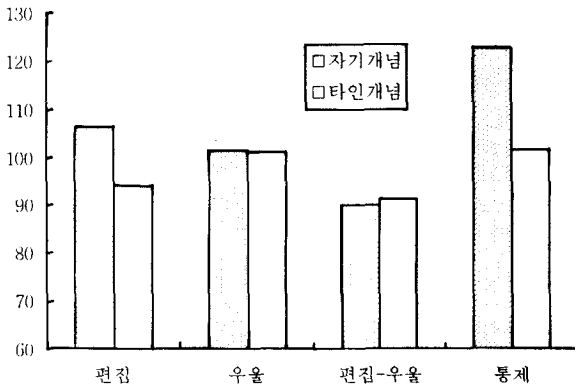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점수 (대학생 집단)

괴리감소 가능성 지각의 경우, 자기-이상간 괴리 감소 가능성 평정과 자기-타인기대간 괴리 감소 가능성 평정 모두에서 편집-우울 집단(각각 4.73, 4.73)이 통제 집단(각각 5.90, 5.82)보다 낮게 평정했고, 다른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즉 괴리감소 가능성 지각은 편집, 우울 두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만 통제집단보다 낮았다. 집단별 분석에서 두 괴리유형간에 차이가 있는 집단은 없었다.

괴리감소 동기 평정치의 경우 두 괴리유형 모두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별 분석결과 편집 집단, 편집-우울 집단은 자기-타인의 기대간 괴리를 줄이려는 동기가 자기-이상간 괴리를 줄이려는 동기보다 낮았고($t(13) = -3.32, p < .01$; $t(13) = -2.69, p < .05$), 다른 두 집단은 괴리유형간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편집성향이 있는 집단은 두 괴리유형에서 괴리의 크기나 괴리감소 가능성 지각은 다르지 않으나, 자기-이상간 괴리에 비해 자기-타인의 기대간 괴리를 줄이려는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즉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상관분석에서도 시사되듯이 타인개념이 부정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귀인양식: 귀인양식 질문지 결과를 집단(4)과 사건 유형(긍정, 부정사건:2), 귀인 차원(3)의 3원 변량분석(사건 유형과 귀인 차원은 피험자 내 변인)한 결과, 3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F(6, 126) = 2.95, p < .01$), 집단과 사건 유형의 2원 상호작용과 사건 유형과 귀인 차원의 2원 상호작용이 각각 유의미했다($F(3, 63) = 11.44, p < .001$; $F(2, 126) = 25.16, p < .001$). 집단과 귀인 차원의 주효과 및 집단과 귀인차원의 2원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고, 사건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해서($F(1, 63) = 39.41, p < .001$), 긍정, 부정 사건을 구분해서 비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건 유형 및 귀인 차원별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긍정 사건에 대한 안정성 귀인에서 통제 집단과 우울 집단이 편집-우울 집단보다 긍정 사건을 더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고, 편집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부정 사건의 경우 편집-우울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부정 사건을 더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 하였고, 다른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집단별로 사건 유형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편집 집단의 경우 긍정사건을 부정사건보다 더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귀인 하였다($t(13) = 4.64, p < .001$; $t(13) = 2.24, p < .05$). 통제 집단의 경우 부정 사건에 비해

긍정 사건을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는 자기봉사적 경향을 보였다.

논 의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호작용, 적대감 수준에 의해 설명되었고, 귀인양식의 경우 내외 귀인 차원보다는 안정성 차원이 편집성향과 관련이 높았다. 내외 귀인 차원 중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점수가 편집 점수와 유의미한 역부분상관($r = -.17, p < .05$)을 보여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도 강하진 않지만 방어적 경향을 나타냈다. 이 변인들은 우울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실제자기-이상적 자기간 괴리와 실제자기-타인의 기대간 괴리의 경우, 실제-이상적 자기간 괴리는 우울과, 실제자기-타인기대간 괴리의 경우 편집증과 상관되었으나, 두 증상 모두에서 실제 자기개념 수준에 더해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는데는 실패했고, 괴리 자체보다는 괴리에 대한 감소가능성 지각이나 감소동기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 지지되었다.

귀인양식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은 방어적인 성향은 있으나 극단적인 방어적 편향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상관 및 회귀분석과 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안정성 차원이 편집성향 설명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사건이 반복될 것이며, 긍정적 사건은 일과적인 것이라는 추론이 피해의식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대학생 집단의 집단간 비교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편집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의 관계인데, 두 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타인개념이 부정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자기-이상 괴리, 자기-타인기대간 괴리에서도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으나, 자기개념이 편집 집단에서 더 긍정적이고, 귀인양식에서 편집 집단은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내부 귀인하는 자기봉사적 경향을, 편집-우울 집단은 반대로 긍정 사건보다 부정 사건을 더 내부 귀인하는 자기비하적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편집-우울 집단은 편집성향 집단의 특성과 우울 집단의 특성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편집 집단보다는 우울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이 집단이 대인관계 사건과 관련된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귀인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Chadwick과 Trower (1996)가 가정한 처벌 편집증(punishment paranoia)과 유사하다. 즉, 자책이나 죄책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처벌을 예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 다른 사람의 부정적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추론이 피해의식의 원인적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 타인개념의 중요성을 제기한 본 연구의 가설과 이훈진과 원호택(1995b), 원호택과 이훈진(1997),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Colby 등, 1979; Freud, 1915/1957; Havener & Izard, 1962; Hingley, 1992; Lyon 등, 1994; Rogers, 1958; Silverstone, 1991)이 편집증의 원인으로 가정한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개념 괴리의 경우, 괴리 자체보다는 그 괴리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감소 가능성 지각, 감소 동기)이 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연구 2. 피해망상 환자집단 연구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를 피해망상 환자 집단에서 재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피해망상 집단은 편집성향 집단과 달리 피해의식이 망상 수준에 이르고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며, 방어적이고 자기봉사적인 귀인편향이 극단화된 상태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따라서 자기보고된 자기개념상에서는 상대적 중진이 있지만, 타인개념이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우울증 환자 집단은 자기개념이 매우 부정적이고 타인개념은 상대적

으로 긍정적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귀인양식에서는, 선행 연구들(Candido & Romney, 1990; Fear 등, 1996; Kaney & Bentall, 1989, 1992)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피해망상 집단은 극단적인 자기봉사적 귀인을, 우울 집단은 그 반대의 귀인양식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피험자

피해망상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환자 16명과 우울증 환자 16명, 그리고 이 두 환자 집단과 연령, 성별, 학력을 일치시킨 정상인 통제 집단 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는 서울 소재의 5개 대학병원과 2개 시립병원, 서울 근교의 정신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상인 통제 집단은 개별적 접촉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령은 16세에서 42세까지 걸쳐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27.13세였다. 진단별로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이 14명, 망상장애가 2명이었고, 우울 집단은 주요 우울장애 3명, 우울장애 13명이었다.

표 4. 집단별 인구학적 특성

집 단		피해망상	우 울	통 제
특성 내용	남	4	4	4
	여	12	12	12
평균연령		28.00	25.31	28.06
학 력	고졸	4	4	4
	대재 이상	12	12	12
결혼상태	미혼	11	11	11
	기혼	3	5	5
	이혼	2		

환자 집단은 주의치 또는 담당 치료팀의 평정 면접지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선발했는데, 현재 환각이

두드러지거나 피해망상 이외의 복합적 망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고, 우울이 심하게 동반되어 감별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울 집단의 경우 적업망상을 보이는 경우는 포함되었으나, 피해망상 등 다른 망상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되었다. 정상인 통제 집단은 환자 집단과 연령, 성별, 학력이 일치되면서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 받은 경험 없이, 현재 정상적인 적응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울 수준과 편집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정상인 통제 집단은 일반 회사원, 은행원, 주부, 대학생, 종교기관 신도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 접촉에 의해 선발하였다. 피험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도 구

평정 면접지: 환자 집단에만 실시한 평정 면접지로 각 환자의 주치의나 담당 임상심리전문가가 현재의 환자 상태와 진단, 망상의 종류와 내용, 환각 여부, 지능 및 성격검사 등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Hopkins 정신의학 평정척도(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개념형성 장애의 5문항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환자 선발은 이 평정 면접지상의 진단과 망상에 대한 평정, Hopkins 평정척도 점수를 기초로 하였다. 기타 자기보고식 질문지들은 대학생 연구와 동일하였다.

절차 및 분석

대학생 연구에서와 동일한 질문지를 개별적으로 전달해서 진료실이나 병실, 정상인의 경우 직장이나 집에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세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간 차이와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변량분석과 집단 내 변인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한 t-검증을 하였다.

결 과

표 5에 각 집단별 주요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우선 대학생 집단에서 집단선발 도구로 사용했던 Beck 우울 척도와 편집 척도 점수에서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이 서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척도는 환자 집단 변별에도 유용함이 시사되었다. 단, 우울 점수의 경우 피해망상 집단도 통제 집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아서 피해망상 집단이 다소의 우울을 동반하고 있었다. 적대감 수준은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1) 자기개념, 타인개념 및 자기개념 괴리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점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2이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자기개념의 경우 피해망상 집단과 통제 집단이 우울 집단보다 긍정적이

었다. 피해망상 집단과 통제 집단은 3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변량분석 한 후 유의도 기준을 높여 두 집단씩 사후 비교한 Scheffé 검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 집단을 제외하고 두 집단 만 따로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 30) = 5.78$, $p < .05$). 따라서 자기개념 수준은 통제, 피해망상, 우울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개념의 경우 피해망상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우울 집단은 두 집단 모두와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학생 집단 연구에서와 일치되는 결과이다(표 5, 그림 2 참조).

집단별로 두 점수간 차이를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자기개념이 타인개념 보다 긍정적이었다($t(15) = 2.19$, $p < .05$). 우울 집단은 피해망상 집단과 반대로 자기개념보다 타인개념이 긍정적이었다($t(15) = -5.01$, $p < .001$). 통제 집단은 피해망상 집단 처럼 자기개념이 타인개념보다 긍정적이었다($t(15) = 2.35$, $p < .05$). 피해망상 집단의 결과는 대학생 편집 집단과 같아서

표 5.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관련 주요 측정치들의 집단별 평균

측정치	피해망상집단 (N=16)	우울증집단 (N=16)	정상통제집단 (N=16)	F
자기개념 총점	102.75(11.48) ^a	84.93(12.08) ^b	111.20(6.58) ^a	25.51 ^{***}
타인개념 총점	93.69(14.16) ^a	98.38(10.03) ^{ab}	106.40(9.77) ^b	4.57 [*]
자기-이상 일치도	2.97(.91) ^a	3.32(1.17) ^{ab}	3.99(.95) ^b	3.85 [*]
자기-타인기대일치도	3.17(1.43)	3.39(1.19)	3.77(.97)	.95
긍정사건 내부귀인	5.50(.83) ^a	4.35(.95) ^b	4.65(.79) ^b	7.50 ^{**}
안정성귀인	5.21(1.00)	4.88(.97)	5.05(1.37)	.36
총체성귀인	5.32(1.14)	5.19(1.45)	5.39(1.21)	.10
부정사건 내부귀인	3.93(1.11) ^a	5.40(.72) ^b	5.07(.75) ^b	12.27 ^{***}
안정성귀인	3.90(1.17)	4.27(1.09)	3.46(1.31)	1.75
총체성귀인	4.41(1.03)	4.74(1.05)	4.37(1.16)	.56
BDI	18.27(9.35) ^a	25.56(9.42) ^b	6.44(4.10) ^c	23.33 ^{***}
편집척도 총점	45.50(12.5) ^a	24.33(7.94) ^b	17.69(6.89) ^b	37.53 ^{***}
적대감 척도	9.40(4.58) ^{ab}	10.00(5.65) ^a	5.13(3.72) ^b	5.05 [*]

영문 위첨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평균치의 집단간 차이 여부를 나타냄. $p < .05$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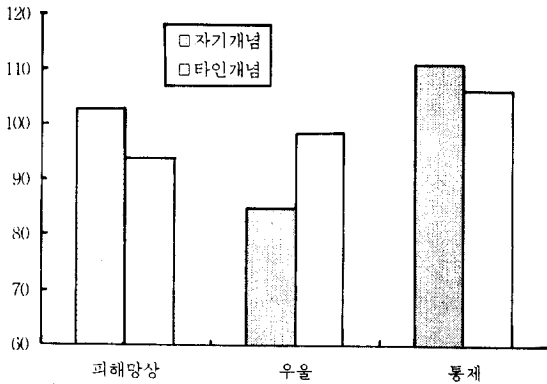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점수 (환자집단)

편집증 집단이 부정적 타인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기개념이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한편 대학생 집단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분석 결과가 정상 통제 집단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편집 점수는 자기개념 총점과 $-.74(p < .01)$ 의 상관과 $-.68(p < .05)$ 의 부분상관을 보였고, 타인개념 점수와도 각각 $-.73(p < .01)$, $-.56(p < .05)$ 의 유의미한 상관 및 부분상관을 보였다. 즉 편집성향이 부정적 자기개념 및 부정적 타인개념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 집단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실제자기-이상적 자기, 실제자기-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자기간의 지각된 일치도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이상 일치도에서는 통제집단이 피해망상 환자집단보다 높았고, 우울증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피해망상 집단이 외부귀인을 통해 자기-이상간 괴리를 줄인다는 Bentall 등(1994)의 가설과 본 연구의 가설을 부정하는 결과이다. 자기-타인기대간 괴리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집단 내에서의 차이점중 결과, 두 괴리유형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없었다.

괴리감소 가능성의 경우, 자기-이상간 괴리 감소 가능성 평정은 우울증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게 평정했고, 자기-타인기대간 괴리 감소 가능성 평정에서도 피해망상 집단보다는 낮게 평정했다. 즉 우울증

집단이 괴리감소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정했다. 집단별 분석에서 두 괴리유형간에 차이를 보인 집단은 없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편집성향이 높을수록 괴리감소 가능성을 낮게 지각했으나, 피해망상 집단은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보고된 자기개념 증진과 관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괴리감소 동기 평정치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귀인양식에서의 집단간 차이

귀인양식 질문지 결과를 집단(3)과 사건 유형(2), 귀인 차원(3)의 3원 변량분석한 결과(사건 유형과 귀인 차원은 피험자 내 변인), 3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F(4, 86) = 4.47, p < .01$), 집단과 사건 유형의 2원 상호작용과 사건 유형과 귀인 차원의 2원 상호작용이 각각 유의미했다($F(2, 43) = 4.55, p < .05$; $F(2, 86) = 9.17, p < .001$). 집단의 주효과 및 집단과 귀인 차원의 2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건 유형과 귀인 차원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다($F(1, 43) = 14.36, p < .001$; $F(2, 86) = 5.44, p < .01$). 이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유형 및 귀인차원별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긍정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의 경우 피해망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내부귀인 하는 경향이 커서 자기고양적(self-enhancing) 귀인 편향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자기봉사적(self-serving) 편향은 부정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에서도 나타나 피해망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부정 사건을 더 외부귀인 하는 방어적 편향을 보였다. 안정성 차원과 통제성 차원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우울 집단의 경우 부정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정도가 피해망상 집단보다 크고, 통제 집단보다도 큰 경향($F(1, 30) = 3.47, p < .06$)이 있었다.

집단별로 사건 유형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적인 원인에 귀인했다($t(15) = 6.33, p < .001$; $t(15) = 2.62, p < .05$; $t(15) = 2.19, p < .05$). 우울증 집단은 부정 사건을 긍정 사건보다 더 내적인 원인에 귀인 했으며($t(15) = 4.16, p < .001$), 안정성과 통제성 귀인은 긍정, 부정 사건간에 차이가 없

었다. 정상인 통제 집단은 피해망상 집단처럼 부정사건보다 긍정사건을 더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 했으나($t(15) = 2.54, p < .05; t(15) = 3.67, p < .05$), 내부귀인에서는 긍정, 부정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은 내부 귀인 차원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피해망상 집단과 통제 집단은 안정성, 총체성 차원에서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나 내외 귀인 편향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망상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자기불사적(방어적, 자기고양적) 귀인편향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우울집단의 귀인양식도 선행연구들과 유사했다.

논 의

연구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우울 집단보다는 긍정적이고 통제 집단과는 큰 차이가 없는 자기개념을 보고했으나, 타인개념은 가장 부정적이었다. 자기개념 피리의 경우 자기-이상간 일치도를 낮게 평정해서, 자기-이상간 피리를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귀인양식의 경우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귀인 했다. 특히 내외 귀인 차원에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긍정 사건은 내부귀인하고, 부정 사건은 극도로 외부귀인하였다. 이러한 귀인양식은 Candido와 Romney(1990), Fear 등(1996), Kanney와 Bentall(1989)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피해망상 수준이 되면 극단적인 방어적, 자기고양적 귀인을 통해 자기개념에 상대적 증진이 일어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피해망상 집단은 실제 자기-이상적 자기간 일치도는 낮게 평정했는데, 이 결과는 망상 수준이 되면 자기-이상 일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Bentall 등(1994)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이며, 자기-이상간 피리가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다는 Kinderman과 Bentall(1996)의 결과와도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측정상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가 지각된 일치도를 직접 측정한데 비해, Kinderman과 Bentall(1996)

은 Higgins 등(1985)의 방식대로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를 나타내는 단어(특성 형용사)를 10개씩 적도록 한 후 그 두 목록간의 동의어 수와 반의어 수를 계산해 피리를 구했다. Higgins 방식을 적용할 경우 피검자들이 단어수를 채우기 위해 앞에 썼던 단어를 적는 경우가 있고, 또 통제집단보다 전체적인 단어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 실제로 Kinderman과 Bentall(1996)의 연구에서 통제 집단은 관점별로 평균 9.63에서 9.91개, 우울증 집단은 3.13개에서 7.71개, 피해망상 집단은 3.40개에서 8.10개의 단어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가능성은 실제 자기개념 수준이 낮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망상 집단의 자기개념은 통제 집단보다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상인 통제 집단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편집성향이 높을수록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이 부정적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 및 부정적 타인개념과 관련된다는 가정은 대학생 집단, 피해망상 환자 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전체논의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이 결합된 결과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추론이 그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망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는 극단적인 방어적, 자기고양적 귀인이 개입된다고 예측하였다.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 연구 결과 편집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 및 부정적 타인개념과 높은 역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상인 통제 집단에서도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부정적 타인개념의 상호작용이 편집 척도 변량의 34%를 설명했고, 적대감 수준이 10% 정도의 추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의식과 편집 성향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정적 타인개념)

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시사한다.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피해망상 집단의 자기개념이 우울 집단보다는 긍정적이고, 통제 집단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타인개념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아 대학생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귀인편향의 경우 대학생 집단은 편집성향이 높을수록 부정 사건을 외부로 귀인하였고, 편집 집단이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더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귀인하는 정도였던 것에 비해, 피해망상 환자 집단은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으로 귀인 했으며, 집단간 비교에서도 우울 집단이나 통제 집단보다 긍정 사건은 내부로, 부정 사건은 외부로 귀인하는 편향이 강했다. 이는 보다 극단적인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을 시사하며, 외국의 선행 연구들(Candido & Romney, 1990; Fear 등, 1996; Kaney & Bentall, 1989)과도 일치한다.

대학생 집단과 환자 집단간의 유사성을 고려해 볼 때, 우울이 동반되지 않은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은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피해망상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집단은 각각 비교집단을 보다 타인개념이 부정적이고, 귀인양식에서 자기봉사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차이점은 자기봉사적 귀인의 정도가 피해망상 집단에서 더 높고, 자기개념이 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우울이 동반되지 않은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이 피해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울이 동반된 집단의 경우, Chadwick과 Trower(1996)가 소개한 처벌 편집증(punishment paranoia)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울과 자책감, 죄의식에 따라 처벌과 공격을 예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우울이 동반된 피해망상 환자 집단을 연구함으로써 검증할 필요가 있다. Candido와 Romney(1990)에 따르면, 우울이 동반된 편집증 환자는 부정 사건에 대한 귀인에서는 비우울 편집증 환자와 동일하게 극도로 외부귀인 했지만, 긍정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Bentall 등(1994)의 가정과 관련해서, 피해망상 집

단이 극단적인 방어적 편향을 보인다는 점, 피해망상 집단이 자기고양, 자기방어의 동기를 가진다는 점, 부정적 자기개념과 큰 자기개념 괴리를 가정했다는 점에서는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자기-이상적 자기간 괴리를 주된 원인적 요인으로 가정했다는 점, 그리고 망상집단에서는 자기-이상간 괴리가 줄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나온 이유는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자기개념 괴리가 실제 자기개념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커서 부가적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측정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편집증상은 부정적 자기개념과 관련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지 도식, 극단적인 방어적, 자기고양적 귀인 편향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러한 편향은 Neufeld(1991)의 주장처럼,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보다 생존가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인지과정과 관련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편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반면 우울증은 부정적 자기개념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며, 귀인에서는 겸양적이고 자책적인 편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가설이 지지되었으며, Bentall 등(1994), Kinderman(1994), Zigler와 Glick(1988) 등 동기적 측면과 방어적 편향을 강조한 연구자들의 입장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기개념 괴리의 경우, 실제 자기개념 수준을 통제하고 나면 편집증에 대한 추가 설명력이 없었다. 더구나 자기개념 괴리 자체보다는 그 괴리에 대한 감소 가능성 지각, 감소 동기 등이 편집성향 및 우울 모두에서 관련성이 높았다. 즉, 주관적 지각과 동기적 측면이 괴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자기-이상간 괴리 자체를 편집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적 요인으로 강조한 Bentall 등(1994)과 Higgins(Higgins 등, 1985; Higgins, 1987), Kinderman과 Bentall(1996)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우울증과의 관련성 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편집성

향과 피해망상, 우울증이 부정적 자기개념이라는 공통 요인을 가지지만, 그 외의 인지적, 동기적 요인들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두 증상 모두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며, 따라서 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학자들(Bentall 등, 1994; Candido & Romney, 1990; Zigler & Glick, 1988)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우울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의 지속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반해, 피해망상은 의도적이고 극단적인 방어적, 자기고양적 편향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동시에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자기개념이 우울증에만 특정적이라는 Tarlow와 Haaga(1996)의 주장이 적어도 편집증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 집단과 편집 집단, 이 두 증상이 동반된 집단을 서로 구분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생 편집-우울 집단의 경우,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의 특성이 혼합되어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종속측정치들과 우울 및 편집 점수와의 상관관계수도 두 점수간의 상관을 통제하고 부분상관을 구하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이 결과는 두 증상 중 어느 하나만을 측정해서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편집 점수가 높은 사람 중에는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과 우울 수준이 낮은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즉 편집증이나 우울증을 연구할 때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편집증과 우울증에서만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우울과 강박 등 다른 증상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로서, 어떤 장애 현상이든 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 수준을 통제하지 않으면,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망상의 개념과 임상적 함의 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편집증상과 피해망상이 동기적 요소(자존감과 자기개념의 유지 및 증진 동기)와 인지적 요인(부정적 타인개념, 자기참조적, 자기봉사적 추론 편향)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전되는 이해 가능한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더구나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 집단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Jaspers(1963/1974 이부영 역)와 Berrios(1991), DSM-IV(APA, 1994)에서 망상이 이해불가능하고 변화 불가능한 병적 현상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망상은 이해가능하고 변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심리적 접근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집증의 치료에서 핵심 요소는 부정적 자기개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정적 타인개념), 자기참조적이고 자기봉사적인 추론 편향 등이다. 이런 점에서, 망상에 대한 심리치료에서 정신분석학이나 고전적 행동주의처럼 동기적 요소만을 강조하거나, 인지치료처럼 사고 내용 및 인지적 측면의 수정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망상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를 시도한 많은 임상가들(Alford & Beck, 1994; Brett-Jones, Garety, & Hemsley, 1987; Chadwick & Lowe, 1990, 1994; Chadwick, Lowe, Horne, & Higson, 1994)은 망상적 인지에 대한 논리적 도전이나 행동실험을 통해 망상 내용을 검증함으로써 수정을 시도했다. 이 치료 기법들은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Bouchard, Vallières, Roy, & Maziade, 1996), 본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치료 기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념상의 혼란 또는 부정적 자기개념이 편집증의 주요 요인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동기에서 강한 인지적 왜곡과 편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Bentall 등(1994)이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Alford와 Beck(1994)도 망상에 대한 인지치료 과정에서 자존감의 저하와 부정적 자기평가에 직면하게 됨을 경고했다. Freeman과 Beck(1990)도 편집성 성격장애의 치료에서 자기효능감(sense of self-efficacy)의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Yusupoff와 Tarrier(1996)도 망상적 인지 자체보다는 대처 방략 또는 자기관리 기술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Chadwick과 Trower(1996)는 편집증을 피해망상형과

처벌형(punishment paranoia)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망상적 인지 보다는 자기평가에 대한 개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단일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Chadwick과 Trower(1996)는 피해망상 집단의 자기개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 결과 우울이 동반되지 않은 피해망상 집단에서도 처벌 편집증과 마찬가지로 자기개념과 자존감 문제는 핵심적 문제임이 드러났다. Cameron(1963)도 피해망상이 낮은 자존감 및 자신에 대한 신뢰의 결여와 관련된다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망상수정을 중심으로한 인지 행동적 접근에 자존감과 자기개념에 대한 치료적 접근(자존감 증진 프로그램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지도식의 수정 등)이 결합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제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우선 편집성향 집단이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증을 연속선상에서 연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이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거나(Fenigstein, 1984; Fenigstein & Venable, 1992), 환자 집단만을 연구했던 것(Bentall & Kaney, 1989; Fear 등, 1996; Kaney & Bentall, 1989; Kinderman, 1994)에 비하면 편집증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제한된 표집이지만 정상인 통제 집단 분석에서도 편집성향이 부정적 자기개념 및 부정적 타인개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집단의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망상이 다른 망상 유형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Fear 등(1996)은 망상 장애가 하위 유형과 상관없는 단일 장애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피해망상형과 비피해망상형은 많은 변인들에서 서로 달랐다. 본 연구는 피해망상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입장에 대해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망상의 내용과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진단기준인 정신분열증과의 관련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대로, Chadwick과 Trower(1996)는 피해망상과 처벌 편집증을 구분했다. 이 구분은 우울의 동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대학생 편집-우울 집단은 연구에 포함되었으나 환자 집단의 경우 우울증과 피해망상이 동반된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울증과 피해망상이 동반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대학생 편집-우울 집단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제한점은, 본 연구가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편집증과 피해망상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제한적인 추론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집증의 원인과 발달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종단적이고 발달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특히 가족관계와 사회경제적 조건이 자기 및 타인개념, 인지적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과 기존의 인지-행동치료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망상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Chadwick과 Trower(1996)의 단일사례 연구는 그 첫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완, 확장하여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다 정교화된 결론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Hopkins 정신의학 평정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서수균(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부영 역(1974). 정신병리학총론. 현대인의 사상, 제 2 권, 실존과 허무(pp321-379). 서울: 태극출판사.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원호택, 이훈진(1997).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73-182.
- 이훈진, 원호택(1995a).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1995b).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연차학술발표논문집*, pp 277-290. 서울: 편자.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ntall, R. P., & Kaney, S. (1989). Content specif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ecutory delusions: An investigation using the emotional Stroop tes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355-364.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errios, G. E. (1991). Delusions as "Wrong Beliefs": A conceptual histor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suppl. 14), 6-13.
- Bouchard, S., Vallières, A., Roy, M-A., & Maziade, M. (1996). Cognitive restructuring in the treatment of psychotic symptoms in schizophrenia: A critical analysis. *Behavior Therapy*, 27, 257-277.
- Brett-Jones, J., Garety, P., & Hemsley, D. (1987). Measuring delusional experiences: A method and its applicat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257-265.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D. J., & Lowe, C. F. (1990). Measurement and modification of delusional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25-232.
- Chadwick, P. D. J., & Lowe, C. F. (1994). A cognitive approach to measuring and modifying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55-367.
- Chadwick, P. D. J., Lowe, C. F., Horne, P. J., & Higson, P. J. (1994). Modifying delusions: The role of empirical testing. *Behavior Therapy*, 25, 35-49.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Colby, K. M., Faight, W. S., & Parkinson, R. C. (1979). Cognitive therapy of paranoid conditions: Heuristics suggestions based on a computer simulation mode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55-60.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84). Self-consciousness and the over-perception of self as targ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60-870.
- Fenigstein, A., & Vanable, P. A. (1992). Paranoia

-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 Freeman, A., & Beck, A. T.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reud, S. (1915/1957 영역판). *A case of paranoia running counter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the disease*. London: The Hogarth Press.
- Frey, D., & Carlock, C. J. (1989). *Enhancing self-esteem(2nd ed.)*.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Havener, P. H., & Izard, C. E. (1962). Unrealistic self-enhancement in paranoid schizophrenic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65-68.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ingley, S. M. (1992). Psychological theories of delusional thinking: In search of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47-356.
- Jaspers, K. (1963/1974 이부영 역). *General psychopatholog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inderman, P., Kaney, S., Morley, S., & Bentall, R. P. (1992). Paranoia and the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 Deluded and depressed patients' attributions about their own attribution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71-383.
- Lyon, H. M., Kaney, S., & Bentall, R. P. (1994). The defensive functions of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rom attribution task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637-646.
- MacKinnon, R. A., & Michels, R. (1971). *The psychiatric interview in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Markus, H., & Nurius, Z.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Neufeld, R. W. J. (1991). Memory in paranoid schizophrenia. In P. A. Magaro (Eds). *Cognitive bases of mental disorder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 Rogers, A. H. (1958). The self-concept in paranoid schizophreni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 365-366.
- Silverstone, P. H. (1991). Low self-esteem in different psychiatric cond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185-188.

- Tarlow, E. M., & Haaga, D. A. (1996). Negative self-concept: Specificity to depressive symptoms and rel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20-127.
- Yusupoff, L., & Tarrier, N. (1996). Coping strategy enhancement for persistent hallucination and delusions. In G. Haddock & P. D. Slade(Eds). *Cognitive-behavioural interventions with psychotic disorders*. London: Routledge.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The Self-Concepts, the Other-Concepts, and Attributional Styles in Paranoia and Depression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Hotaek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paranoid tendency and persecutory delusions are related to negative self-concepts, negative other concepts, and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depressed subject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paranoia was that this two symptoms have common factors of negative self-concepts, but paranoid groups have more negative other-concepts and more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s. In Study 1, the Self-concept Scale, the Other-concept Scale, the Paranoia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Hostility Scale, the Self-Discrepancy Scale,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75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anoid tendency was related to negative self-concepts, negative other-concepts, slightly defensive attributional styles. Depression was related to negative self-concepts and self-accusing attributional styles. In Study 2,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depressed patients, and normal control group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reported more positive self-concepts than depressed patients, but reported more negative self-concepts than normal control groups. And they showed most negative other-concepts and extreme self-serving biases.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